

또 '암초' 만난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

법원 "땅값·공사비 등 새 사업자 부담" 화해 권고 내려 광주시, 7월 사업자 공모 걸림돌 우려 수용 여부 고민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광주시가 원(原)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오는 7월 사업자 공모가 예정된 상태에서 법원이 제시한 권고안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최근 어등산 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할 경우 이미 투입된 땅값, 공사비 등 상당액을 새 공모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렸다.

어등산리조트측이 기존에 개발을 하면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일정액을 새 공모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광주시는 최근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숙박 시설은 축소, 돈이 되는 상가시설 확대 쪽으로 개발방향을 선회하고 민간개발방식으로 확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300억원대의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먼저 완공한 골프장을 개장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에 부지 기부가 부담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 진행중이며 이번 법원의 조정 결

정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여부를 놓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할 입장이라는 데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월에는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새 사업자에게 어등산리조트측에 줄 상당액을 부담시켜야 하는 데 이 경우 공모에 응할 업체가 있을 지가 걱정이다.

법원이 제시한 막대한 '상당액'의 규모도 광주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이미 투입된 투자비용이 320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을 거부, 정식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민간업자와의 소송 장기화에 따른 개발사업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원고(어등산리조트)와 피고(광주시, 광주시도시공사) 양측은 다음 달 6일까지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되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조성사업 민간위원회, 변호사 등의 각계의 의견을 들어 법원의 조정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10년 넘게 끌려온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 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금 2018년 바다… 대책 필요”

전진숙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설립한 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금이 바닥을 드러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 4) 의원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 지원협약’에 따라 설립한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자산이 2018년이면 소진될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은 2008년 후원재단 설립 당시 매년 10억원씩, 송원문화재단은 2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2012년, 시교육청은 2015년 연간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으며, 송원문화재단은 2010년 1억원,

2011년 3000만원으로 줄였다가 재단에 서 탈퇴했다.

남화토권이 2012년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3년만에 탈퇴했으며, 현재 참여 중인 영암마트의 지난해 출연금은 500만 원에 그쳤다. 재단 보유 자산은 지난해 17억4300만원이며, 사업대상 학생 수는 3000명으로 16억3800만원이 필요한 처지다.

추세대로라면 시와 시교육청이 5억원씩 출연한다해도 2018년에는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상황이 이렇데도 후원금 모금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다”며 “수억대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재단 운영에 대한 감사 등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0세 이상 은퇴자 재취업·재능기부 서비스

전남시니어새일터센터 개소

전남시니어새일터지원센터가 29일 개소식을 갖고 전남지역 만 60세 이상 은퇴자 대상 재취업 알선과 취업교육, 각종 재능기부, 자원봉사 연계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만 60세 미만 은퇴자들은 소외됐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60~64세)는 자녀 양육과 결혼, 부모 부양에 떠밀려 직장 은퇴 이후 '실버 푸어'로 내몰리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시니어새일터지원센터를 통해 고학력의 다양한 직업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이른바 '노령전문인'이라고 하는 신노년층이 늘면서 은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시니어새일터지원센터는 전남노인회관 내 취업지원센터에 동자를 틀어 맞춤형 교육과 전문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 속하지 않는 중장년층 은퇴자(만 60~64세)를 대상으로 재취업 알선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은퇴자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재능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복지 시설 자원봉사, 교육강사 파견 등 다양한 수요처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게 된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은퇴자들의 축적된 삶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전남지역 기업과 은퇴자 모두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들이 실버푸어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대통령, 내일 미·중·일 연쇄 정상회담

북핵 공조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3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과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한미, 한미일, 한중 순서로 양자 및 3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3차 회담은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과 각각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64명 고용창출 기대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서구 시청사 3층 비즈니스룸에서 (주)호원 등 1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투자협약(투자액 872억원)에 따라 36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동차·에너지기업 12곳

광주시와 투자협약 체결

광주시가 국내외 기업과 잇따라 투자협약을 하며 기업유치에 청신호를 켰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주)호원, ㈜위니아글로벌테크, 인텍전기(주) 등 12개 기업과 투자액 872억원, 고용 364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자동차산업에 호원이 254억원, 가전산업에 위니아글로벌테크가 203억원, 금형기계 산업에 대유중공업을 비롯한 5개 기업이 233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산업에 인텍전기 등 3개 기업이 142억원, 의료기기에 케이제이메디텍, 문화산업 분야에 온위즈 등 총 12개 기업이 8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행복주택 1050세대 2018년부터 공급

목포 용해·여수 수정·여수 관문동·나주 혁신산단 4곳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주 혁신산단지구 등 전남지역 4곳에 공급된다.

전남도는 29일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LH공사, 전남개발공사,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행복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해 행복주택 입지 발굴과 사업 제안을 하고,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목포 용해(450세대), 여수 수정(200세대), 여수 관문동 동시장(150세대), 나주 혁신산단지구(250세대) 등 4곳에 1050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입지 여건이 양호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한국도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도 상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에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신규 사업을 발굴, 지역 행복주택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45㎡ 이하로, 80%를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해 최대 6년간 거주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65세 무주택 노인계층과 무주택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할 수 있다.

위광원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행복주택 사업 공동협약으로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고민을 해소하고 주변 기존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밝은광주안과 의원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 스미약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